

국내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관계 연구

장유미*

¹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time and Wage in Korea

Yu-Mi Jang*

¹Division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복지패널자료로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잠재적인 추이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 패턴을 통해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연도별 개인의 효용극대화점의 변화와 노동공급곡선의 방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부터 2012년간 가구 월기준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비선형 성장곡선이 아닌 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추정해 보면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노동시간과 임금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 가구의 한계효용점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이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좀 더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the value of leisure to develop a more accurate model of the labor market without necessarily losing the primary merit of the received model. Moreover, with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dynamics, it can be seen that progressive era labor market legislation, which was design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bargaining power inequality in low wage labor markets, was in fact based on sensible economic foundations. These low-wage dynamics present an example of a positive feedback system or "vicious circle" at work in the economy. The market dynamics of the low wage sector push the wage away from the range that is consistent with a self-regulating market.

Key Words : backward-bending labor supply curve, income effect, labor time, substitution effect, wage

1. 문제제기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특히 임금변화에 대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나타내며 각 계층 간의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몇몇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서 노동공급곡선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

득과 여가의 교환 총체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노동공급 함수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견해도 불구하고 이 모형에서 유추되는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의문시 되었다. 이후 고전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이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고소득층과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Robert E. Prasch의 수정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

*Corresponding Author : Yu-Mi Jang(Changshin Univ.)

Tel: +82-55-250-1273 email: jangyoume@hanmail.net

Received January 27, 2014

Revised (1st August 7, 2014, 2nd August 29, 2014)

Accepted September 11, 2014

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재의 페널데이터로는 추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잠재적인 추이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 관계의 패턴을 통해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연도별 개인의 효용극대화점의 변화와 노동공급곡선의 방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임금과 노동공급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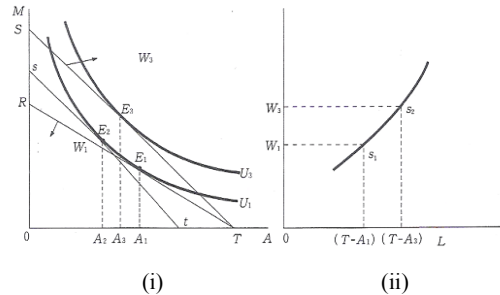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이론은 ‘사람 수로 표시한 노동공급’에 관한 것으로 인구 중에서 각각의 경제활동참가여부가 결정되면 각자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노동공급은 사람 수와 각 노동자가 공급하는 시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노동자는 1주일에 100시간이라는 총 이용가능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의 총 이용가능시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하자. 예컨대 고용주가 원하는 고정된 시간뿐만 아니라 잔업, 특근작업, 연월차 및 휴일을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도 있다고 하자. 이때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개인의 여가-소득을 결정하면, 여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다른 아닌 노동공급시간의 선택과 동일하다.

시장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는 보다 많은 시간을 시장노동에 배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임금이 시간당 W_1 이라고 하자. Fig. 1 (i)에서 한 개인의 효용극대화는 E_1 점에서 이루어지고 그는 그의 총 이용가능시간을 OA_1 만큼의 여가시간과 $A_1 T$ 만큼의 노동시간에 배분한다. 이제 임금이 시간당 W_3 으로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그림 (i)에서 그의 효용극대화는 E_3 점에서 이루어지고 그는 그의 총 이용가능시간을 OA_3 만큼의 여가와 $A_3 T$ 만큼의 노동에 배분한다. 따라서 E_1 과 E_3 를 비교하면, 한 개인의 여가시간은 OA_1 에서 OA_3 로 줄고 노동시간공급은 TA_1 에서 TA_3 로 증대한다.

개인의 균형점 E_1 과 E_3 에 담긴 정보를 가로축에 노동시간, 세로축에 임금을 놓은 그림으로 옮긴 것이 바로 그림 (ii)에 나타난 개인의 노동시간 공급곡선이다. 예를 들

어 그림 (i)에서 임금이 W_1 일 때, 그가 노동하고자 하는 시간은 (1주일 총이용가능시간-여가시간)이므로 그림 (i)에서 $(OT-OA_1)$ 이 되며, 임금이 W_3 일 때 노동시간은 $OT-OA_3$ 이므로 이들 점들을 그림 (ii)에 옮겨 놓으면, 그림 (ii)의 s_1 과 s_2 을 연결하면 개인의 노동시간 공급곡선이 된다.



[Fig. 1] Labor time and wage

2.2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2.2.1 여가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

임금상승이 여가에 미치는 효과가 밝혀지면, 노동공급시간은 (1주일 총이용가능시간-여가시간)으로 구해진다. 여가는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데, 여가의 대가(즉, 임금)가 상승하면 이 여가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은, 인간에게 비효용을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즉,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여가에 대한 수요이론이 노동시간의 공급이론이 된다[25].

임금상승이 여가수요 및 노동시간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분해될 수 있다.

2.2.2 대체효과

여가의 가격(즉, 임금)이 상승하면 우선 노는 것(여가)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원(여가시간)을 덜 소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는 여가의 절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소득취득활동으로 용도전환(대체) 된다. 이것을 임금상승의 대체효과(代替效果)라고 한다. 임금상승의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이다[25].

임금상승의 대체효과를 Fig. 1(i)을 살펴보면, 임금이

예컨대 시간당 W_1 에서 W_3 으로 상승하면 예산선은 RT에서 ST로 된다. 예산선이 RT에서 ST로 보다 가파르게 되면 한 개인은 보다 높은 효용수준 U_3 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ST와 평행한 선, st를 긋되 이 st가 U_1 과 접하도록 해보자. 이 점점 E_2 는 임금이 W_3 이었다면 효용을 종전과 같이 U_1 수준을 유지할 때 한 개인이 취했었을 여가-소득의 선택을 보여준다. 최초의 균형점 E_1 은 임금이 W_1 일 때의 한 개인이 취하고 있는 여가-소득의 선택인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무차별곡선 U_1 위에서 E_1 에서 E_2 로의 이동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비싸진 여가시간을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이는 대체효과를 측정한다.

2.2.3 소득효과

임금이 상승하면 한 개인의 근로소득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와 여타의 소비재를 동시에 더 구입하려고 한다. 여가를 더 소비하게 되면 노동시간의 공급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임금상승이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여가를 더 소비하게 하는 효과를 소득효과(所得效果)라고 한다. 임금상승의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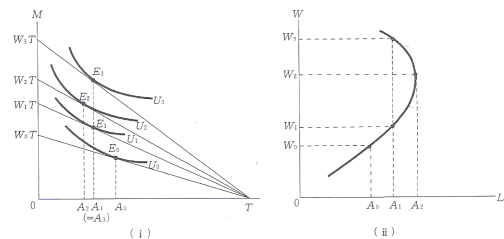
소득효과를 Fig. 1(i)을 살펴보자. 이미 U_1 위에서 E_1 에서 E_2 로의 이동을 임금상승의 대체효과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E_2 와 E_3 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산선이 st에서 ST로 평행이동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예산선 평행이동의 결과 한 개인의 소득이 그림 (i)에서 sS만큼 증가했을 때, 균형점이 E_2 에서 E_3 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E_2 에서 E_3 로의 이동은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증대해진 결과 여가를 더 소비하려고 하는 소득효과를 나타낸다.

임금상승이 여가에 미치는 총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계이다. 만약에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여가에 대한 수요량은 줄고 노동의 공급량은 증대될 것이다. 즉,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반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하게 될 것이다.

2.2.4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면,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시간은 줄고 노동공급은 증대하므로, 임금을 세로축에 놓고 공급된 노동시간을 가로축에 놓아서 그려진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질 것이다(즉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다)[15]. 그러나 임금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임금상승이 있으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함으로써 오히려 여가소비량이 늘고 노동공급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17]. 이러한 현상 또한 [Fig. 2]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이 W_0 에서 W_1, W_2, W_3 로 상승함에 따라 한 개인의 효용극대화 점인 E_0, E_1, E_2, E_3 로 변화할 때, $E_0 \rightarrow E_1 \rightarrow E_2$ 로의 이동은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시간은 증대되는 것을, E_2 에서 E_3 로의 이동은 오히려 여가가 증대하고 노동공급시간은 감소되는 것을 나타낸다[15].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시간의 변화를 그림 (ii)에 나타내면 W_2 라는 임금수준 이상에서는 임금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이 줄어든다[16]. 따라서 공급곡선이 ‘뒤쪽으로 구부러지는 공급곡선’, 즉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backward-bending supply curve)의 형태를 지닐 수가 있게 된다[20].



[Fig. 2] backward-bending labor supply curve

3. 실증적 분석

3.1 연구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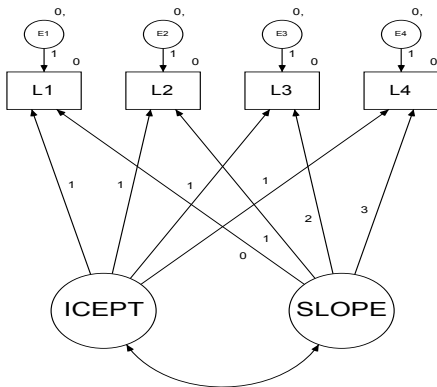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 4차(2009년도), 5차(2010년도), 6차(2011년도), 7차(2012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동시간과 임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용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구단위의 노동시간과 임금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가구의 노동시간, 임금액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때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구원만 분석

에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가구이며, 노동시간과 임금 변수는 가구원 중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총 노동시간과 총 임금액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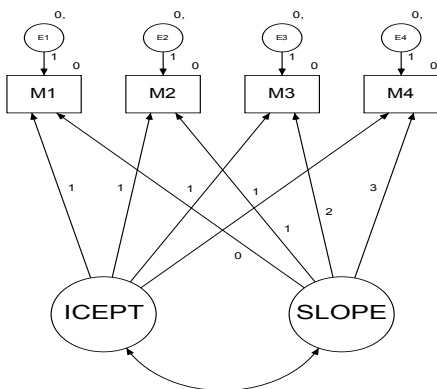
노동시간은 지난 1년 동안 근로가구원들이 일한 총 개월 수를 월 노동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며, 임금은 근로가구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 급여액(원천징수전 총급여)을 월임금의 값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은 먼저,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다음으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변수의 잠재성장곡선모형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두 변수의 변화에 대한 서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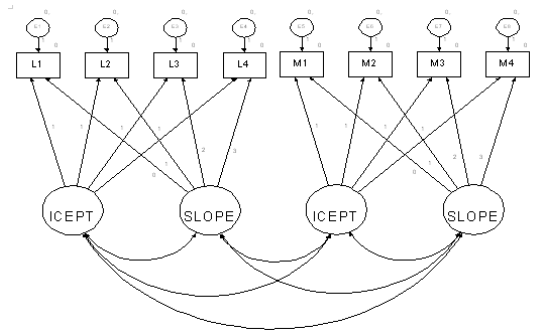
3.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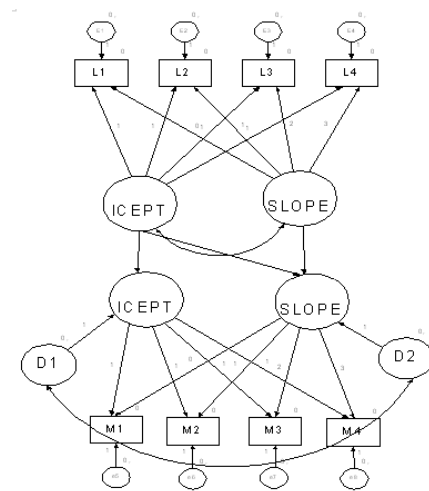
[Fig. 3]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f Labor time



[Fig. 4]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f Wage



[Fig. 5] Latent Growth Curve Covariance



[Fig. 6] Latent Growth Curve Causal models

3.3 변수설명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평균(average)’을 통해 논의 된다는 점이다. 평균을 통한 접근은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다양한 노동시간과 임금의 독특성을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결과로 해석할 소지가 높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과 임금의 평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가정 내 무임금과 시간의 경향을 발견하지는 못한다. 또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과잉노동자나 과소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의 양태 및 생활시간의 양태를 파악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사회적 사실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 대한 평균’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넘어서 ‘가구(household)’차원에서, ‘남성 가족 부양자 모델’이 아니라 ‘맞벌이 체계’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노동, 여가, 임금, 가족은 독립적인

영역이라기보다 서로 결합한 관계 영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수의 설정도 가구에서의 전체 월 노동시간과 월 임금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Variable

Variable	explanation	unit
L1	2009year Labor Time	hour
L2	2010year Labor Time	
L3	2011year Labor Time	
L4	2012year Labor Time	
M1	2009year wage of household	million won
M2	2010year wage of household	
M3	2011year wage of household	
M4	2012year wage of household	

3.4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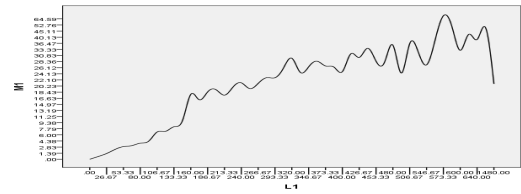
기술통계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추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절대 부합지수인 RMSEA와 상대부합지수인 CFI, TLI(NNFI), AIC를 사용하고자 한다. RMSEA ≤.05이면 모델 오류의 정도가 아주 양호한 모델로 평가하고, .05 < RMSEA < .08이면 어느정도 괜찮은 모델이며, RMSEA ≥ .10이면 부합도에 문제가 있는 모델로 평가한다. 그리고 90% 신뢰구간에 따른 RMSEA의 상한치를 확인한 다음 상한치가 평가기준 .10이하가 될 경우에 모델이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NNFI >.90이면 만족할 만큼의 향상을 가져온 좋은 모델로 평가하고, CFI >.90이면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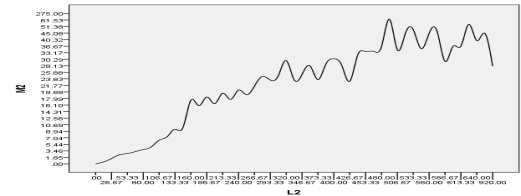
3.5 연구결과

3.5.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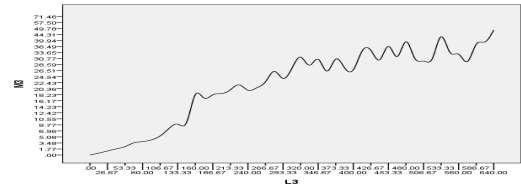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조사 4차년도 조사는 2009년에 6,207가구, 5차년도 조사는 2010년에 6,034가구, 6차년도 조사는 2011년에 5,735가구, 7차년도 조사는 2012년에 5,731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의 변화는 Fig. 7, Fig. 8, Fig. 9, Fig.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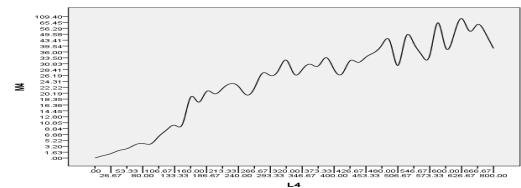
[Fig. 7] 2009year



[Fig. 8] 2010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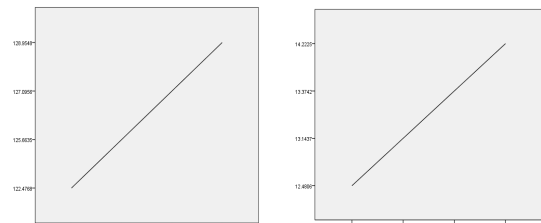
[Fig. 9] 2011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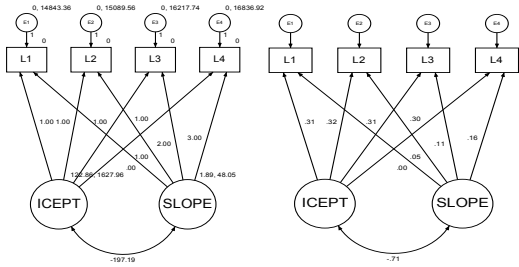
[Fig. 10] 2012year

3.5.2 노동시간 잠재성장곡선

매년 노동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니 Fig. 11과 같았다. 노동시간의 잠재성장곡선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Fig. 12, Table 2, Table 3과 같다.



[Fig. 11] Change of Labor time and Wage on years



[Fig. 12]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utput of Labor time

[Table 2] Model's suitability(1)

χ^2_M	df_M	p	RMSEA	CFI	NNFI (TLI)	AIC
6.753	5	.240	.008	.998	.976	24.753

[Table 3] Labor time Implied m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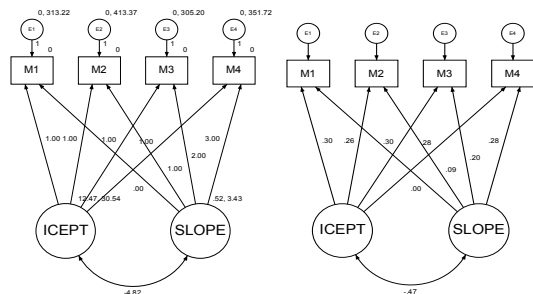
L4	L3	L2	L1
128.527	126.637	124.747	122.856

Fig. 12에서처럼 모델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ICEPT와 SLOPE의 공분산은 -197.19, 상관은 -.71로 나타났다. 절편인 ICEPT 평균은 122.856이고, 기울기인 SLOPE 평균은 1.890으로 나타나 ICEPT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적합도는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Table 3의 Implied means를 살펴보면, 연도가 변화함에 따라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시간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비선형 성장곡선인지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3.5.3 임금 잠재성장곡선

임금의 잠재성장곡선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Fig. 13, Table 4, Table 5와 같다.



[Fig. 13]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output of wage

[Table 4] Model's suitability(2)

χ^2_M	df_M	p	RMSEA	CFI	NNFI (TLI)	AIC
13.456	5	.019	.017	.932	.864	31.456

[Table 5] Wage Implied means

M4	M3	M2	M1
14.045	13.521	12.998	12.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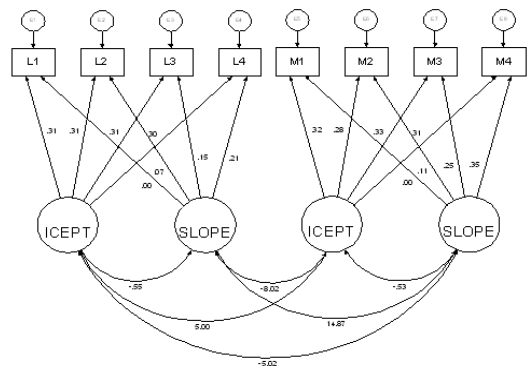
Fig. 13에서처럼 모델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ICEPT와 SLOPE의 공분산은 -4.82, 상관은 -.47로 나타났다. 절편인 ICEPT 평균은 12.474이고, 기울기인 SLOPE 평균은 .52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모델적합도 역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Table 5의 Implied means를 살펴보면, 연도가 변화함에 따라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선형 성장곡선인지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3.5.4 노동시간과 임금의 잠재성장곡선

노동시간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곡선간 공분산과 인과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임금의 변화에 대한 노동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Fig. 14와 같다.

1) 잠재성장곡선간 공분산



[Fig. 14] Latent Growth Curve Covariance Output

Fig. 14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간 상관은 14.87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간의 ICEPT 평균은 122.396이고, SLOPE 평균은 2.050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이 ICEPT 평균은 12.423이고, SLOPE 평균은 .545로 나타나 Means의 결과에서도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의 공분산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잠재성장곡선간 인과모델

모델에서 제시된 결과,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의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의 변화량이 임금의 변화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체적인 평균 변화량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모델적합도에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동시간과 임금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4.1 연구결과 및 제언

먼저,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비선형 성장곡선이 아닌 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인과관계 검증에서는 유의미하나 모델 적합도에서 낮은 수치를 보여 노동시간과 임금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함께 증가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의 가계의 한계효용점은 우상향으로 이동하는데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증대해진 결과 여가를 더 소비하려고 하는 소득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값비싼 여가시간을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좀 더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개별 노동자의 선호와 선택을 넘어선 다양한 힘들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혹은 구조적 상황의 변인들이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동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동시간에 대한 소득효과론, 개인선호론, 기술효과론과 같은 이론에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성은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도 관련 자료를 통한 현재 국내 노동시간과 임금 추이의 기본적인 설명은 제공하나 이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후방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보이지 않으나 노동시간의 정체 혹은 감소함에도 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소득효과가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소득분위간 삶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의 패널자료를 통해 추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변화를 통해 관계를 보고자 한 것으로, 임금의 책정이 노동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서로간의 변수 변화를 통해 확인한 연구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새로운 시도와 방법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관계를 본 것에 의의를 두겠다.

4.2 한계점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정규직여부에 대한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노동형태별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살펴보기는 힘들었다. 간단한 비교임에도 의미 있는 예측을 보여주므로 후속으로 소득분위별, 성별, 직종별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변화를 통해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의 배분에 대한 연구와 노동공급곡선의 변화를 추정하는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 [1] Bluestone, Barry, and Stephen Rose. "The Unmeasured Labor Force: The Growth in Work Hours." *Public Policy Brief no. 39, Annandale-on-Hudson, N.Y.*: 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 1998.
- [2] Brosnan, Peter, and Frank Wilkinson. "A National Statutory Minimum Wage and Economic Efficiency." pp. 1-48, *Contributions to Political Economy* 7, 1998.
- [3] Card, David, and Alan B. Kruger.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4] Cater, Thomas J. "Policy in a Two-Sector Efficiency Wage Model: Substituting Good Jobs for Bad." pp.

- 445-461,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20, no. 3, Spring 1998.
- [5] Commons, John, and John Andrews. *Principles of Labor Legisla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6.
- [6] Dessing, Maryke. "Implications for Minimum Wage Policies of an S-Shaped Labor Supply Curve." Manuscript in possession of author,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va, 1999.
- [7] Gordon, David M. *Fat and Mean: The Corporate Squeeze of Working Americans and Myth of Managerial "Downsizing."* New York: Free Press, 1996.
- [8] Katz, Michael L., and Harvey Rosen. *Microeconomics*. Boston: Irwin, 1991.
- [9] Kaufman, Bruce E.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4th. ed. New York: Dryden, 1994.
- [10] Lester, Richard A. *Economics of Labor*. New York: Macmillan, 1941.
- [11] Levine, Robert. *A Geography of Time*. New York: Basic Books, 1997.
- [12] Mincer, Jacob.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Measurement in Economics: Studies in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in Memory of Yehuda Grunfeld*, edited by Carl Christ, Milton Friedman, Leo Goodman, Zvi Griliches, Arnold Harberger, Nissan Liviatan, Jacob Mincer, Yair Mundlak, Marc Nerlove, Don Patinkin, Laster Telser and Henri Thei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 [13]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John Schmitt.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1998-199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 [14] Power, Marilyn. "Parasitic-Industries Analysis and Arguments for a Living Wage for Women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Feminist Economics* 5, pp. 161-78, March 1999.
- [15] Prasch, Robert E. "In Defense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Economic Issues* 30, no. 2, pp. 391-397, June 1996.
- [16] _____. "The Overburdened Consumer: The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Service Sector."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Vassar College, 1997.
- [17] _____. "Complexity and Economic Method: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Complexity and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dited by David Colander. New York: Routledge, 1998.
DOI: <http://dx.doi.org/10.4324/9780203436004>
- [18] _____. "American Economists and Minimum Wage Legislation During the Progressive Era, 1912-1923."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0, no. 2, pp. 161-175, June 1998.
DOI: <http://dx.doi.org/10.1017/S1053837200001838>
- [19] _____. "Review of The Winner-Take-All Society, by Robert H. Frank and Philip J. Cook." *Eastern Economic Journal* 24, no. 2, pp. 244-246, Spring 1998.
- [20] _____. "American Economists in the Progressive Era on the Minimum W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3, no. 2, pp. 221-230, Spring 1999.
DOI: <http://dx.doi.org/10.1257/jep.13.2.221>
- [21] _____. "John Bates Clark's Defense of Mandatory Arbitration and Minimum Wage Legisl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2, no. 2, pp. 251-263, June 2000.
DOI: <http://dx.doi.org/10.1080/10427710050025448>
- [22] Prasch, Robert E., and Falguni A. Sheth. "The Economics and Ethics of Minimum Wage Legislation." *Review of Social Economy* 57, pp. 466-487, Winter 1999.
- [23] Schor, Juliet B.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1992.
- [24] Taylor, John B. *Economics. 2d.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1998.
- [25] Yu Bae, Kim. *Labor Economics. 2d. ed*. Seoul: PakYoungSa, 2006.

장 유 미(Yu-Mi Jang)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장과 분배, 노동과 고용, u-Health & u-Wellness